



# 첫홀 이글, 신지애 첫날 단독선두

KLPGA 챔피언십 1R... 퍼펙트샷 6언더  
최나연도 만점 플레이... 허윤경 등과 2위

‘골프 지존’ 신지애(22·미래에셋)가 메트 라이프-한국경제 제32회 KLPGA 챔피언십(총상금 7억원) 1라운드에서 단독 선두에 나섰다.

신지애는 16일 경기도 용인 88골프장 서코스(파72·6540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날 1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4개를 묶어 6언더파 66타를 쳤다. 공동 2위에 2타 앞선 신지

애는 2008년 10월 KB국민은행 스타투어 4차 대회 이후 1년11개월 만에 국내 대회 우승 가능성을 부풀렸다.

신지애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KLPGA 명예의 전당 입회 점수를 채워 입회 기간 10년이 되는 2015년 명예의 전당 가입을 예약할 수 있다.

1번 홀(파4)부터 출발이 상쾌했다. 148m

정도를 남기고 23도 하이브리드로 날린 샷이 한 번 튀긴 뒤 홀로 빨려 들어가 이글을 잡았다. 신지애는 “대회 첫날 첫 홀 이글은 처음 해본 것 같다”며 즐거워했다.

신지애는 이날 페어웨이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고 그린 역시 9번 홀(파4)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키는 완벽한 샷 감각을 뽐내며 이틀감을 했다.

역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에서 뛰는 최나연(23·SK텔레콤)도 버디만 4개를 잡아 4언더파 68타, 허윤경(20·하이마트), 김혜윤(21·비씨카드)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 전반과 후반에 버디 2개씩 잡아낸 최

나연은 “100% 만족한다.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했고 100점을 주고 싶다”며 2007년 이후 3년 만에 이 대회 패권 탈환에 자신감을 내보냈다.

LPGA의 ‘원투 펀치’인 신지애, 최나연에 비해 ‘국내파’들은 상대적으로 잠잠했다. 지난주 대우증권 클래식에서 시즌 2승째를 거둔 이보미(22·하이마트)는 버디, 보기 1개씩 맞바꿔 이븐파 72타, 공동 21위에 올랐고 유소연(20·하이마트), 안신애(20·비씨카드)도 같은 성적으로 첫날을 마쳤다. 서희경(24·하이마트)은 보기 4개를 쏟아내 3오버파 75타, 공동 62위로 밀렸다. /연합뉴스



힘찬 질주

사이클 3대 투어 중 하나인 ‘라 부엘타’ 17번째 스테이지에서 슬로 베니아의 피터 벨리츠 선수가 16일(한국시간) 힘차게 페달을 밟고 있다. /연합뉴스

# ‘위기의 8회’ 특하면 역전패



‘디펜딩 챔프’ KIA엔  없었다

- ① 내부 경쟁
- ② 우승 효과
- ③ 타이밍

2010시즌 KIA의 움직임은 너무 빠르고 또 너무 늦었다.

지난 4월 KIA는 총력전을 벌였다. 총력전은 이대진, 라이트 등 선발진의 부상을 불러왔다. 개막 후 4월까지의 성적은 11승15패. KIA는 투·타 그리고 선발·볼펜의 잇박자 속에 8차례 역전패를 당했다. 첫 단추 꿴기에 실패한 불안한 출발이었다.

쉬어가는 때와 속력을 내야할 때 구분 없이 초반 싸움이 전개되면서 선발진에 이어 볼펜도 균열이 시작됐다. 부상병 김상현도 초반 무리한 운행을 하다가 시즌 중반 수술대에 오르면서 타선의 폭발력이 약화됐다.

승리 쌓기에 너무 빨리 속도를 내는 바람에 중반에 전력을 재정비하면서 치고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다.

반면 마운드의 움직임은 늦었다.

지난해에는 손영민-곽정철-유동훈으로 이어지는 막강 ‘SKY 볼펜진’이 승리를 완벽하게 지켜줬지만 올 시즌 세 선수의 움직임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들의 힘이 떨어지면서 투수교체가 번번이 좋

로 돌변했다. 올 시즌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내준 경기는 36경기나 된다. 벤치가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사이 더그아웃 분위기도 미묘하게 돌아갔다.

역전패가 계속되면서 선수들간 ‘불신’의 씨앗이 싹텄다. 선수교체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고, 이해관계가 맞물린 선수들 사이에서 “너 때문에...”라는 갈등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V 10

승수쌍기 조금증에 한발 늦은 투수교체 화 불려 시즌중 전력 재정비 시기도 놓쳐 ‘16연패’ 치욕

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 역시 타이밍이 문제였다.

한발 늦은 투수 교체-실점-역전패로 이어지는 ‘KIA 공식’이 생겨난 것이다. 타선의 운용도 좋지 못했다. 타선 보강을 소홀히 한 탓에 KIA는 주전선수들의 부상과 부진이 맞물리면서 적시 적소에 타자들을 배치할 수 없었다. 지난 시즌 백발백중을 자랑했던 대타 성공률도 급락했다.

어느 틈에 ‘약속의 8회’는 ‘위기의 8회’

로 돌변했다. 올 시즌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내준 경기는 36경기나 된다.

벤치가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사이 더그아웃 분위기도 미묘하게 돌아갔다.

역전패가 계속되면서 선수들간 ‘불신’의 씨앗이 싹텄다. 선수교체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고, 이해관계가 맞물린 선수들 사이에서 “너 때문에...”라는 갈등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V 10

승수쌍기 조금증에 한발 늦은 투수교체 화 불려 시즌중 전력 재정비 시기도 놓쳐 ‘16연패’ 치욕

의 든든한 동력인 ‘팀워크의 붕괴’였다. 믿음이 사라지면서 선수 개개인의 부담감은 가중됐다. 그러나 성적은 끝모를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홈팬들이 다시 떠올리기도 않은 치욕의 ‘16연패’가 그것이다.

KIA는 우승을 통해 값진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었지만 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 타이밍 싸움에서 완패하면서 4강 탈락의 쓴 잔을 마셨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KIA 이용규 9월 MVP



KIA 타이거즈 이용규가 16일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앞서 광주밤은안과21이 시상하는 9월 월간 MVP를 받았다. 이용규는 15일 현재 9월 한달 동안 23타수 8안타 타율 0.348을 기록하고 있다. 시상은 광주밤은안과21 김주엽 원장이 했고, 이용규는 시상금 100만원 중 불우이웃돕기 적립금으로 50만원을 내놓았다. <KIA 타이거즈 제음>

## KIA 오늘 홈 최종전 팬서비스

KIA 타이거즈가 삼성과의 시즌 마지막 홈경기가 열리는 17일 최종전 행사를 갖는다. 시즌 마지막 홈경기가 열리는 이날 KIA는 아시안게임 대표로 출전하는 윤석민·이용규·양현종의 사인회를 개최한다.

왕뚜껑 홈런존 사랑나눔 기금 전달식도 열린다. 사랑나눔 기금은 시즌 동안 선수단이 왕뚜껑 홈런존을 낚긴 홈런에 따라 한국야쿠르트가 개당 100만원의 적립금을 모은 것으로 올 시즌 KIA 선수들은 9개의 홈런으로 900만원을 적립했다. 한편 이날 입장 관중에게는 선착순으로 도루구 면도기와 멧기머리 샴푸 등을 증정하고, 광저우 아시안게임 응원단 추첨도 실시한다. /김여울기자 wool@

새로 발명한

발목 펌프 운동봉

1일 30~40분 운동으로 노후 건강이 보장된다

가격 30,000원  
택배비 무료

**발목펌프운동**은 혈액순환장애에서 시작되는 모든 질환에 대한 걱정을 해결시켜 준다. 고혈압, 당뇨, 비만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은 사람의 심장에서 밀려나간 혈액이 발목까지 내려가면 힘이 쇠진 되어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 데서 온다. 지속적인 왕성한 혈액순환을 위하여 일본인이 최초로 개발한 이 기구는 약을 전혀 먹지 않고 꾸준한 **발목펌프운동**으로 각종 질병이 치유되고 동시에 예방할 수 있으므로 평생을 건강하게 무병장수 할 수 있다.

운동봉을 빌려 드리오니 실제 체험을 해 보시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구입하시고 효과없으면 반품하세요.

운동방법

- ① 누워서 운동봉 위에 두 다리를 올려 놓는다.
- ② 한쪽 다리를 30cm 이상 위로 올렸다가 떨어뜨리기를 50번씩 번갈아 좌, 우 교대로 한다.
- ③ 이상과 같이 처음에는 하루에 500회, 1,000회 차차 횟수를 늘려 1일 3,000회(아침 저녁 2회)정도 매일 꾸준히 한다.

온라인  
계좌  
광주은행 125-121-002455  
농협 601154-52-335334

상  
담  
화  
062)672-2002 / H.P. 010-7510-2000  
광주 남구 전월동 258-1 2층 제일건강 / 국민은행 건너편 연린도너츠 2층

http://www.hankooktea.co.kr

##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  
 각종 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외 3개국 수출증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師의 차만 남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師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간동Set

다담Set

우전검로

감사Set

·광주 차생원 : 062)224-2902 ·광주 신세계점 : 062)360-1232 ·광주 롯데점 : 062)221-1037 ·광주 현대점 : 062)510-7040  
 ·목포 차생원 : 061)281-1002 ·서울 차생원 : 02)730-2983 ·부산 차생원 : 051)256-7007-8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763-4 T.222-2902,3973